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이진수(02-2100-2880)	담 당 자	최 지 은 사무관 (02-2100-2886)	

제 목 : 금융위원장 중국 보아오포럼 최초 참석

■ 금융위원장 최초로 중국 보아오포럼 참석하여 중국을 비롯한 ASEAN국가와의 금융협력과 교류 증진

- '한·중 CEO 대담'(ROK-CHINA CEO DIALOGUE) 주재
- 태국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금융계 인사와 면담

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국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보아오포럼 연례회의에 초청을 받아 금융위원장 최초로 참가

○ 금번 보아오포럼은 '공유된 미래, 일치된 행동, 공동의 발전'(Shared future, Concerted action, Common development)이라는 주제로 개최

○ 중국의 리커창 총리, 한국의 이낙연 총리,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*을 비롯, 2,000여명의 정계·재계·학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

* '18.4월 보아오포럼 이사장(chairman)으로 취임

<보아오포럼 개요>

- ▷ 아시아 국가간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중국 최대규모의 국제경제 포럼으로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을 지향
- ▷ '98년 일본 호소카와 前총리, 필리핀 라모스 前대통령, 호주 호크 前총리 등이 제안하고, 중국의 적극적 후원으로 출범
- '01.2월 아시아지역 26개국으로 출범하여 현재 총 29개 회원국으로 확대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(금) 보아오포럼 공식 세션으로서 처음 개최되는 ‘한·중 CEO 대담*(ROK-China CEO Dialogue)’을 주재할 예정
 - * LONG Yongtu 전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차관, CHEUNG SikSze 요우신 파이낸셜 대표, 우리금융그룹·KB금융지주 회장, 한화생명 사장 등 참석
 - 핀테크 산업 성장을 포함한 산업혁신과 기술융합, 고령화, 무역장벽 등 양국간 공통된 관심사항에 대해 토의하고,
 - 한·중 경제·금융계 기업인의 제3국 시장 진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양국간 경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
- 아울러, 금융위원장은 태국 중앙은행 총재(Veerathai Santiprabhob)와의 양자면담을 통해 한·태국간 금융협력을 강화할 예정
 - 양국의 최근 금융혁신 정책인 핀테크, 규제샌드박스, 지급결제 인프라 개편 등 금융당국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
 - 현지 금융사 영업환경 개선 등 우리 금융사의 현지진출 확대와 금융인프라 협력 강화 등 양국간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 교환
 - 또한, 보아오포럼 기간 중 ‘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acing Fintech*’ 등 주요 프로그램을 참관하고,
 - *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등 기술-금융의 융합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변화, 혁신의 촉진과 시장 규제 간 균형, 효율성 증진과 금융포용 간 균형 등에 대해 논의
 - 올해 처음으로 개최될 한국 핀테크 위크*(Korea Fintech Week 2019, 5.23~25)에 대해 포럼 참석자들에게 소개할 예정
 - * 국내외 핀테크기업, 금융당국, 국제기구, 금융회사 등이 참석하여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위해 핀테크 산업을 소개하고 국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	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